



프랑스 파리의 대형 화랑 갤러리 페로탱에서 한국 단색화가 박서보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6일 박 화백이 자신의 '묘법' 작품 앞에 섰다.

갤러리 페로탱 제공

수백번 칠한 單色, 파리를 물들이다

佛 페로탱서 전시하는 박서보

“모든 작품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우환)

“감사하오. 나는 여기가 이렇게 큰 화랑인지 모르고 처음엔 거절을

했었어. 허허...” (박서보)

파리 중심가 마레지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노(老)화가 인사(人舍)를 나눴다. 6일(현지 시각) 프랑스의 메이저 화랑 갤러리 페로탱에서 개막한 단색화가 박서보(83) 개인전이다. 페로탱은 영국의 데미언 허스트와 일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소개한 유럽 굴지의 화랑이다. 개막식을 찾은 이우환(78) 화백은 “페로탱에서 한국 화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때 절친했던 둘은 몇십년간 소원했다가 최근 화해했다.

◇“평면이 갈 길을 제시했다”

갤러리 1층과 2층에 걸쳐 박씨의 대표작 37점이 걸렸다. 전관을 아울러 소개하는 개인전은 갤러리 역사상 처음이다. 기획과 큐레이터를 맡은 김용대 전 대구시립미술관장은 “1970년대작 ‘백색묘법’부터 최근의 색채 작품까지, 자연채광이 좋은 갤러리 특성을 살려 배치했다”고 했다.

전시장을 둘러본 박 화백은 “내 나이 83세 들어 비로소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다”며 감격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화단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조명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팝아트 이후에 평면은 갈 길을 잃었는데, 한국의 단색화가 평면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개념예술은 머리로만 하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도둑질했거든. 그런데 단색화는 행위에 의해서 물성이 나오고 그 바탕에 정신이 있어요. 그 점을 세계가 알아보는 거죠.”

박서보는 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을 이끌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70년대 초부터는 지속적으로 ‘묘법(Ecriture)’이라고 불리는 무채색의 모노크롬(monochrome·단색화) 작업을 해

최근 해외서 주목받는 한국 단색화 대표주자

“팝아트 이후 갈길 잃은 회화 단색화에서 가능성 찾아”

왔다. 연필로 끊임없이 선을 긋는 작업을 통해 마음을 비워내고 수신(修身)한다고 했다. “스님이 온종일 목탁을 두드려서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

그는 “지난 2000년 일본에서 시뻘겋게 타오르는 단풍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홍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루 14시간씩 그림 그리느라 그전까지 단풍 구경 한번 못 했다. “자연의 색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 색채에 홀렸지요.”

무채색만 고집하던 작가는 그때

부터 색채의 모노크롬으로 전환했다. 수없이 아크릴물감을 붓고 섞고 저으면서 자연에 가까운 색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둔 한지를 겹겹이 캔버스에 올린 뒤 굵은 4B 연필로 100번 이상 선을 그어 골이 패게 한 다음 한지가 굳기를 기다려 틀을 잡아 색을 입힌다. ‘도 닦기’라 할 정도로 끈기와 정성이 요구되는 작업. 그는 “나를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결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음을 요즘 들어 더욱 절감한다”고 했다.

◇“회화인데 조각 같은 입체감”

이날 개막식에는 로랑 르봉 피카소미술관장, 피에르 캄봉 기메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등 파리 미술계 인사를 비롯해 300여명이 찾았다. 관람객들은 8개의 방을 돌며 오랫동안 그림을 감상했다. 수백번 칠해서 머금은 색채가 빛의 양과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다. 로랑 르봉 관장은 “굉장히 정교하면서 힘이 있다. 평면인데 옆에서 보면 조각 같은 입체적 요소가 있다”고 평했다. 이우환 화백은 “1970년대엔 한국에 올 때마다 열흘씩 선생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며 “한국 사람의 신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마음을 비우고 수양하듯 몸을 들여야 나오는 작품”이라고 했다. 전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파리=허윤희 기자